

“10명 중 3명 꼴 집사겠다”...광주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30.3% “하반기 아파트 매입”
 매수 의향 강세...39.4% “아파트값 오를 것이다” 전망도

올해 하반기 광주에서 '아파트를 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아파트값 상승을 예

측하는 시각도 우세해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판매대와 손님 모두 감소한 수산물시장

부산 중구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을 찾은 시민들이 국내산 선어를 구입하고 있다. 이 곳의 판매대와 손님 등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28일 광주·전남지역 뉴스플랫폼 사랑방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8월13일 뉴스룸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명 중 30.3%가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 때, '6개월 내 신규 주택을 매입 하겠다'는 응답(21.8%) 보다 8.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7월 말엔 18.3%에 불과했다.

아파트매입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28.4%)'이 가장 많았고,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25.4%),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 축소 이동(17.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파트 매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69.7%)는 '거주, 보유주택이 있고 추가매입 의사가 없어서'가 37%로 가장 많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27.3%),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4.9%), 대출 금리 인상부담이 커서(14.3%), 전반적인 경기 불황(6.5%)이 뒤를 이었다.

올해 하반기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과 관련해서는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 442명 가운데 39.4%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그 이유는 '저렴 바닥 인식론 확산에 대한 기대'가 3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규제완화 정책(20.1%), 금리인상 기조 둔화(19.7%), 매물 거래로 인한 실수요 유입(10.9%)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33.5%는 '경기침체 지속'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20.4%), 기준금리가 높다는 인식(20%), 광주 신규 입주물량 증가(10.4%)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하반기 광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선 '대출 금리' 관련 정책이 핵심이라고 봤다. 이어 부동산 세금 완화(22.9%), 가계부채와 대출규제 완화(22.4%),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아파트 공급(11.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저점 바닥 인식론이 커지면서 시장 움직임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시장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는 남성 55.6%(246명), 여성 44.3%(196명)이 각각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8%(154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34.3%(152명), 30대 15.8%(70명), 60대 이상 9.0%(40명), 20대 5.8%(26명) 등의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다. 취재본부

한빛원전 민간감시위 “일본 오염수 400일 후 우리 해역 유입”

‘일본 방사성 오염수’ 감시·조사활동 강화 나서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400여일 후 우리나라 전 해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감시·조사활동 강화에 나섰다.

한빛원전 민간감시위는 지난 24일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제1발전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실시함에 따라 영광주변 해역의 해양방사능 준위 감시와 조사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감시위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로 영광지역 수산업 피해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천일염, 영광굴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 해역의 수산자원 안전성 감시 강화를 결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 관계기관에 영광을 포함한 전남해역에 대한 강화된 방사능 분석을 제안했다.

한빛원전 안전감시센터는 한발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광 바다 유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양방사능 준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지점은 총 12곳으로 영광 주변 낙월도·송이도·안마도, 흥농·염산 주변 해역, 오염수 유입 예상 지역인 제주도, 진도군을 비롯해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울산 방어진 등이다.

센터는 해당 지점에 대해 매년 2회 삼중수소(3H)와 세슘(134Cs·137Cs) 등 후쿠시마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영광 해역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민간감시위는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분석자료 인용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이동해 7개월 뒤엔 제주 앞바다로 유입되고, 40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전남 도민의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400여일 후 우리나라 전 해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감시·조사활동 강화에 나섰다. (사진=한빛원전 민간감시위 제공)

안전과 영광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해양 방사능 분석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시활동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알리고 관계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